

문화

■ 문화예술 지원 '지역 홀대' 없애려면...

인맥·정보·기획 '경쟁력' 갖춰야

예산 70% 서울 배정 ... 지역 문화 고사 위기

지역간 정보 공유·연대 통해 지방 몫 확대를

최근 지역 공연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일 작품에 1억원,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지역협력형 사업'이었다.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배분한 1억5천만원과 시의 매칭펀드 1억5천만원을 포함, 모두 3억원 수준. '지역협력형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지역과 중앙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로 위임한 사업이다. 일단 지역협력형 사업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무래도 인적·물적 인프라가 탄탄한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역 단체가 선정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에 배분된 금액이 전체 예산의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 문화 살리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예술위원회가 책정한 예산은 모두 80억원. 이 가운데 서울은 모두 56억

원을 배정 받았다. 부산의 경우 2억 8천만원을 받았으며 광주를 포함한 나머지 시·도는 각각 1억원~2억원씩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서울 편중 현상'은 지속적인 문제다. 2008년 예술위원회의 예산 861억 중 공보 사업 예산 318억원을 제외한 433억 중 301억원이 서울에 배분됐다. 광주는 7억4천3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2기 문진위가 내놓은 2010년 예산안에서도 예술 창작 및 활동 지원의 경우 133억원 중 50억원을 서울에 우선 할당했다. 다행히 지역의 발달로 위원회 측이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예산 집행까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중심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과감한 발상 전환, 구조적인 개편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획력 강화

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처럼 예술위원회가 지자체에 일정액을 할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예술 단체는 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진행하는 공모 역시 참여 단체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 중심 인사들로 꾸러지는 심사위원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서울과 경쟁을 피하거나,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뛰어난 기획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인맥'과 '정보', '기획력' 등에서 월등한 서울 단체들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 접근이 유리한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예술단체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를 비롯, 각종 문화 관련 기관이 진행하는 공모 사업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춰 놓는 게 급선무다. 또 지역 예술단체들에 대한 컨설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몇차례 심사에서 떨어졌다 울해

문광부의 지원을 받은 A단체 대표는 "처음 문광부가 진행하는 공모 기획안 등을 작성해야 할 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어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에서 논의중인 정책은 지방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협의체 등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지방문화 발전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예술위원회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11명 위원중 지역 인사가 단 한명 뿐인 점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경기·강원권 등 권역별로 지역위원 수를 확대하는 게 절실하다. 최근 지역 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최상문(부산예총 회장) 예술위원회의 위원은 "지금과 같은 지원정책이 계속된다면 지역민들은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간 연대를 통해 중앙 정부를 상대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미술관 '갤러리 LIGHT' 개관 1주년 성과와 과제

광주 작가 서울 진출 창구 역할

인사동 화랑가 멀고 전시공간 좁아 어려움도



광주시립미술관의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가 지역작가들의 서울 진출을 돕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서울시 인사동에 마련한 '갤러리 LIGHT'가 개관 1년 만에 중앙 무대 진출을 꿈꾸는 지역 미술인들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했다.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8월6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사동 미림화방 건물 2~3층에 230㎡(약 70평) 규모의 '갤러리 LIGHT'를 개관했다. 지방 공립 미술관이 서울에 자체 전시 공간을 얻은 것은 '갤러리 LIGHT'가 처음이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개인전 등 41회의 전시회가 열렸고, 9월 현재 1만7천9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서 서울 화단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오는 2010년 8월까지 모든 대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이곳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저렴한 대관료 덕이다.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경우 하루 대관료만 50만~150만원이 들어 부담이 크지만 이곳은 일주일에 100만원만 받고 있다. 또 시립미술관 학예사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 입소문을 내주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시립미술관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시를 한 30여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갤러리 LIGHT' 개관이 지역작가들의 중앙 화단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80%는 '이곳에서 다시 전시를 열고 싶다'고 답해 참여 작가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된 작품도 호평을 받아 시립미술관이 운영 중인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기획전(2008년 12월 24일~2009년 1월13일) 출품작의 절반이 판매됐다. 반면 '갤러리 LIGHT'의 위치가 화랑이 집중돼있는 '삼지길' 일대에서 다소 떨어져있고, 전시 공간도 좁아 대형 작품을 선보일 수 없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기획전시를 위한 '갤러리 LIGHT'의 1년 예산이 1천만원에 불과해 지역미술을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획전은 3차례밖에 열지 못한 것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기업 '메세나'도 찬바람

불황으로 지난해 문화예술 지원 11.5% 줄어

경제 불황으로 지난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가 14일 발표한 2008년도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문화예술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천659억8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천876억여원이었던 2007년에 비해 11.5% 줄어든 것으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메세나협의회는 분석했다. 총 지원액은 기업 자체 지원금

1천600억2천여만원과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59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한 액수다. 문화예술에 지원한 기업 수는 469개사로 전년(403개사) 대비 16.3% 늘었으나 지원 건수는 2천389건으로 전년(2천402건)보다 0.5% 줄었다. 총 지원액 중 기업 출연 문화재단에 지원된 금액은 469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28.3%를 차지했고, 이중 지원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리움 등 미술관을 운영해온 삼성문화재단으로 나타났다. 2위는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한 LG연암문화재단, 3위는 음악영재 발굴사업에 집중된 금호아시아

나문화재단이 차지했고, 4위는 CJ문화재단, 5위는 대한문화재단이었다. 기업 중에서는 울산 현대 예술관 운영과 문화나눔 사업에 지원한 현대중공업이 5년 연속 1위에 올랐고, 홈플러스, 포스코, SK텔레콤, 한화, KT&G, 두산, 현대백화점,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현대생명, 현대인프라, 현대건설, 현대카드,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현대생명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지원금액으로는 문화예술교육에 투입된 돈이 3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 운영지원비인 인프라에 351억원, 미술 305억원, 서양음악 224억원 순이었다. /연필뉴스

서덕은 거문고 연주회 내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서덕은 거문고 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 서구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거문고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서씨는 한강독류 거문고 산조, 율화중곡 '유년의 여름', 황병기곡 '나도음', 김동진곡 '출강' 등 전통과 창작 음악을 아우르는 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중이며 퓨전국악실내악단 '쉬는 호흡, 숲'의 대표도 맡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바람의 딸' 한비아 광주서 강연

내일 전남대 응봉홀



최근 에세이집 '그건 사랑이었네'(푸른숲 펴냄)를 낸 한비아(51·서진)씨가 광주를 찾았다. 16일 오후 7시 전남대 응봉홀. 이번 광주 방문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 일환이다. 세계 오지여행과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전해주고 있는 한씨는 이번 행사에서

할 예정이다. 이번에 펴낸 책 '그건 사랑이었네'는 지난 8년 6개월간 국제 NGO 월드비전 구호활동을 마친 뒤 심정을 담은

에세이로 대학시절 첫사랑과의 재회, 가족이야기, 신앙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사까지 담담하게 털어 놓았다. 홍익대를 졸업한 한씨는 국제홍보회사에서 근무하다 1993년부터 7년 간 세계의 오지를 여행했으며 이후 국제구호활동가로 변신해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국제 NGO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으로 일해왔다. 지금까지 낸 책으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전 4권, 푸른숲 펴냄',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법원부동산경매정보' (Court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by '국민법률경매(주)' (National Law Auction Co., Ltd.). It featur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Region), '소매지' (Retail Land), '지목' (Land Use), '면적(㎡/평)' (Area), '잔액' (Remaining Amount), and '최저가' (Minimum Bid). The table lists various auction lot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Jeonbuk, and Jeollabuk-do. Contact information for '정미경' (Jeong Mi-kyung) is provided: TEL: 062-351-0664, H·P: 010-7628-0664.